

종합·해설

재보선 D-20 ... 표심잡기 가속화

전형준 후보 사퇴... 화순군수 선거 요동

“자속하며 백의종군 하겠다...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6일 전격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화순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로써 2002년 이후 계속됐던 전직 군수 집안간 재대결은 무산됐다.

전형준 전 군수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한쪽 당사자로서 자속과 반성의 의미에서 백의종군할 생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부부군수' '형제군수'의 불명예를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 세력이 화순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순의 갈등과 분열의 한쪽 당사자인 '부부군수' 후보(임호경 전 화순군수)도 스스로 물러나 자속하고 자신을 되돌아 볼 여유를 가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사퇴와 동시에 민주당 홍익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선거에서는 이날 전 전 군수의 사퇴 배경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부당이 컸다는 점과 자신이 후보를 가진 사퇴함으로써 임호경 전

군수의 동반 사퇴를 유도하고, 임 전 군수를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회와 함께 민주당 홍 후보를 지지한 것은 전 전 군수의 지지층이 민주당과 겹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주당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동시에 민주당 당력을 바탕으로 임 전 군수를 끝까지 견제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전 전 군수의 사퇴로 인해 지난 2002년 이후 계속돼 온 두 집안의 재대결이 무산되면서 든든하고 고정적인 지지기반이 있는 무소속 임호경 전 군수와 민주당 홍익식 후보 간의

치열한 2강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전 군수 측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돼 팽팽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각축 속에 백남수(48) 전 민노당 전남도당위원장, 최만원(45) 진보신당 전남도당 준비위원장, 민병홍(51) 전 전남도교육위원, 임호환(66) 전 한국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등 후보 등도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잡은 여야 원내대표단 한나라당 김우성 원내대표와 이준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호남에 중이온가속기 설치해야”

여야, 신공항·과학벨트 등 국책사업 난맥상 추궁

국회 대정부질문

6일 진행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임지 선정 등 대형 국책 사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우선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 호남권 공동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 압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날 독일과 일본의 체계적 기초과학연구단지 두 곳(막스플랑크연구협회, 이화학연구소)을 방문했던 자료들을 제시하며 "독일과 일본처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진 안전지대에 반드시 기초과학연구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학벨트가 정치 상품화 되어선 안 된다"며 영남지역으로의 중이온 가속기가 배치되는 것을 견제한 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학벨트가 정치상품화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과학벨트 임지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부의 지원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와 관련, 여당 영남지역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책임론"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이 지역구인 박민식 의원은 질의서에서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방의 희생이 왜 국익과 동의어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방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노력을 때스기라고 매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와 관련,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앞장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종시 수렴안,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도시 등이 그 예"라며 "최소한 소관부처 장관이라도 사퇴하거나,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孫, '민생실정' 공약 중산층 파고들기

순천 무소속 VS 야권 단일후보 치열한 싸움

강원 '이광재 동정론' 등 변수 많아 예측불허

4·27 재보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6일 '필승'을 향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특히 분당을, 강원도, 김해를 3곳의 선거에서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 여야의 사활을 건 선거전은 가열될 전망이다.

분당에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박매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는 등 예측불허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는 당의 대대적 지원 대신 '지역일꾼론'에 초점을 맞춘 '내 흠로 선거'로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은평을 보궐선거의 이재오 특임장관처럼 당의 지원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낯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중산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당 시민들과 인사하다 보면 고물가 등으로 위기에 몰려 있음을 실감한다"면

서 "근면한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재벌은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중산층 민심을 자극했다.

김해에서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가 맞대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박진업 후보,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원지사 보선의 경우 한나라당 엄기영, 민주당 최문순 등 2명의 MBC 사장 출신 후보의 경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는 속속 '경제살리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4일 강원지역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엄 후보가 45.4%, 최 후보가 28.3%로, 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동정론'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순천 국회의원 보선은 민주노동당 김선동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야권 단



일후보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불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무공천'을 선언한 민주당이 아직까지 '순천 무공천'에 대한 당 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후보 단일화 작업이어서 향후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속속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고 있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무소속 VS 야권 단일후보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해를 단일화 성사 될 듯 민주당 "100% 여론조사 수용"

국민참여당의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던 경남 김해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민주당의 극적인 양보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 측이 국민참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진업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는 야권이 반드시 단일화해서 승리해야 하는 지역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100%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국민참여당이 애초 요구했던 것으로 민주당은 광후보의 결단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국민참여당도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 야권 후보 단일화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광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2년 대선 때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면서 내린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고뇌에 찬 결단을 본받지 않을 수 없었다"며 "통 큰 양보와 결단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무현재단 문제대 이사장과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백인우 의원 등이 후보와 함께 나란히 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극소수 정치 참여형 검사가 문제"

김학재 의원 '친정' 검찰 비판 눈길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6일 국회 신고석에서 '친정'인 검찰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도 보궐선거 출마한 최문순 전 의원과의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 의원은 이날 의원 취임선서 후 연단에 오르자마자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개혁 대상이 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며 "저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검찰에는 모든 문제가 검찰을 통해 해결되는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 권력의 비대화 등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다"며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혁할 게 없다고 강변

한다면 이는 오만으로 비쳐질 것이고 국민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검사는 열심히 일하지만 정치성향이 강한 극소수의 정치 참여형 검사가 문제"라며 "국회에서 합리적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의석 쪽에서 "들어가"라는 야유가 터지자 김 의원은 "신진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며 인사 말을 마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4.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진 5·18 광로변)
5.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임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촌동, 대인동 소재서면2번)

010-2441-1610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함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광산동 농장.양어장(용)매매

- ▶면적: 4,000평, 철도및유지(그린벨트) 관리사 15평(가든가능) 8미터 도로접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자연녹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 ▶대 지: 700평
- ▶건 물: 415평 (공장, 사무실, 기숙사)
- ▶전 기: 400kW
- ▶9번 도로접
- ▶매매가격: 13억

화순 남면 매리 잡종지매매

- ▶면 적: 1,800평(보전관리)
- ▶건 물: 건물 32평
- ▶매매가격: 2억원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특허방수

하차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탁월

전천후시공성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 겨울철 실내온도 3~5℃ ↑

전기료 30~40% ↓ 난방비 15~20% ↓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본사 전속모델 텔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